

소프트파워의 미래전략

김 상 배
(서울대학교)

17대 대통령 선거일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향후 5년여의 세월을 헤쳐 나갈 미래 전략의 구상들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한국만큼 미래 국가전략에 대한 논의가 무성한 나라도 없을 것 같다. 해가 바뀌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시각에서 다양한 종류의 미래전략들이 쏟아져 나온다. 분명히 이번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럴듯한 구상들이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이름을 달고 등장할 것이다. 돌이켜 보건대, 미래에 대한 구상과 준비는 아무리 많이 이루어져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 중에서 제대로 된 것을 하나라도 건진다면 밀지는 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도 많은 미래전략 중에서 하나도 쓸 만한 것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다. 비슷한 미래전략들을 서로서로 베끼고 그럴듯한 내용들을 취사선택하여 편집하는 와중에 그 내용이 얼추 비슷해져 버리는 경우마저도 있다. 누가 만들었건 간에 미래전략이라는 이름이 붙은 문건의 첫 십여 페이지는 거의 비슷한 톤을 담기도 한다. 그렇다고 너무 자조할 것은 없다. 이러한 현상을 다른 눈으로 보면 지난 수십여 년 간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할 미래전략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는 미래의 활을 당겨야 할 과녁들이 어디쯤에 어떠한 모양으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한국의 21세기 미래전략이 활시위를 당겨야 하는 과녁들은 어디에 서 있는가?

물론 그 과녁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일 수도 있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계와 언론계에서 특히 빈번히 입에 오르내리는 과녁 중의 하나는 ‘소프트파워(soft power)’라는 과녁이다.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은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조셉 나이(Joseph S. Nye, Jr.)의 작업에서 시작되었다. 나이는 지난 십여 년의 개념화 작업 끝에 최근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라는 단행본을 펴낸 바 있다. 나이에 의하면 소프트파워의 개념은,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push) 하드파워(hard power) 또는 ‘완력(腕力)’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설득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끄는(attract) ‘매력(魅力)’을 그 핵심으로 한다. 매력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을 호리어 끄는 힘(attractive power)”이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매력의 홀릴 매(魅)자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는 소프트파워보다는 차밍 파워(charming power)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소프트파워의 개념을 통해서 나이가 보여주하고자 했던 것은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이 강제하는 권력인 하드파워로부터 문화·이념·외교 등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소프트파워가 21세기 세계정치의 전면에 부상한다는 점이었다.

나이의 소프트파워는 미국의 세계전략이라는 실천적 문제를 염두에 두고 사용된 정책개념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분석적인 학술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의 개념은 권력이동(power shift)의 두 가지 차원, 즉 권력의 주요 원천이 물질적 자원에서 비물질적 자원으로 이동하는 현상과 권력의 작동 메커니즘이 직접적인 강제와 제

재의 방식으로부터 간접적인 설득과 유도의 방식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하나의 개념으로 엮어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나이는 하드파워로부터 소프트파워로의 이동이라는,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도식을 사용함으로써 그의 개념을 전세계적으로 널리 전파시키는 데 남다른 성과를 발휘하였다. 요컨대, 나이의 소프트파워 개념은 물질 기반과 작동 메커니즘의 두 가지 차원에서 동시적 변형을 경험하고 있는 21세기 세계정치 권력의 본질을 매우 쉽게 풀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이의 소프트파워 개념은 강대국 중심의 세계정치 현실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나이의 소프트파워 개념은 탈냉전 이후의 세계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세계패권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려는 미국적 문제의식의 연속선상에서 등장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은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발산하는 데 주안점이 있을 뿐이며 비(非) 강대국의 소프트파워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듯하다. 소프트파워의 개념은 원래 하드파워의 측면에서 강대국인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소프트파워를 활용하는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세계정치에서 소프트파워가 어떻게 ‘생산’ 되는지, 그리고 하드파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소프트파워를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마치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먹을 수는 있지만, 그 음식의 조리법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을 연상케 한다. 이러한 나이의 개념은 소프트파워 자체를 재는 미(美)의 척도마저도 좌지우지하여 세계정치라는 미인대회(美人大會)의 심사위원 노릇까지 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파워의 개념은 여전히 서구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비서구 지역의 사회과학자들에게도 개념으로서의 소프트파워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드파워의 관점에서는 강대국이 되는 것은 요원한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소프트파워의 세계정치는 무언가 새로운 가능성의 지평을 열어주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기까지 하다. 우리처럼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실력(實力)의 측면에서는 비(非) 강대국인 나라가 세계정치의 현실에서 매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폭력도 없고 금력(金力)도 주변 강대국들에게 맞설 정도로 충분하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매력 있는 국가가 될 길은 없을까? 분명히 매력이라는 요소가 실력이나 완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매력이나 소프트파워라는 말을 들으면 괜스레 설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정말로 매력에서 우리의 미래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의 소프트파워 개념이 마음이 홀린 까닭일까?

그러나 미국의 학자가 제시하는 개념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거울아! 거울아! 나도 예쁘니?” 하고 읊조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단순히 나이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되비추어 보는 행태를 넘어서 ‘우리의 거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대국들만큼 ‘자연미인’은 아닐지라도 ‘매력적인 화장술’을 개발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매력의 과녁에 만점짜리 화살들을 꽂아 넣을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매력의 미래전략에 대한 고민은 궁극적으로 21세기를 맞이하여 변환을 겪고 있는 권력정치의 본질에 대한 탐구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21세기 권력변환의 탐구가 어느 한 전공의 시각에서는 풀리지 않는 어려운 숙제라는 데 있다. 최근 미래인력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첫발을 내딛은 ‘매력의 미래전략’에 대한 연구가 학제간 연구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